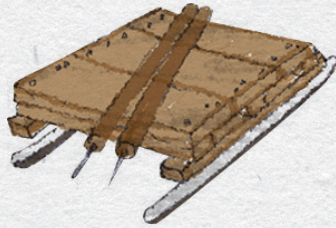


그땐 그랬지...

‘어릴적 겨울’에 대한 기억



봄의 전령 3월입니다..

그리고 한번의 겨울이 또 지나갔습니다.

지난 겨울을 생각하다보니 어릴적 겨울에 대한 추억이
오버랩되어 잠시 미소짓게 되네요.

어렸을 땐 겨울이 무척 추웠던 기억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양볼은 누구나 발갛게 변하고 손은 두꺼비 등 처럼 갈라지는 계절이었죠.



지금은 눈이 내리자마자 치워버려 눈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때는 첫눈이 내리고 나면 겨울내내 하얀 눈
이
작은 마을을 덮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추운 계절에도 아이들에겐 또다른 재미가
있기도 했었죠. 겨울이 되면 시골의 집 양철 지붕엔
언제나 고드름이 열렸었죠.





그 고드름을 따먹기 위해 마루에서 처마 끝 고드름을 향해 열심히 뛰어 올랐었죠.
여러번 시도 하다보면 결국 고드름을 손에 쥐게 되고 그 고드름을 빨아 먹던 달콤함이란 ...

고드름 먹기가 싫증나면 이젠 마을 개울이나
논으로 달려 나가야죠.
아이들 손에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썰매가 들려있었죠.
썰매에도 금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통은 약간 굵은 철사를 감아서 썰매를 만들었죠.
그런데 가끔 스케이트 날을 사용해서 만든 썰매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있으면 왠지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다 같이 뽕뽕 얼음을 지치며 놀던 기억
그리고 한 켠에서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를 돌리는
아이까지 그당시 특별히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